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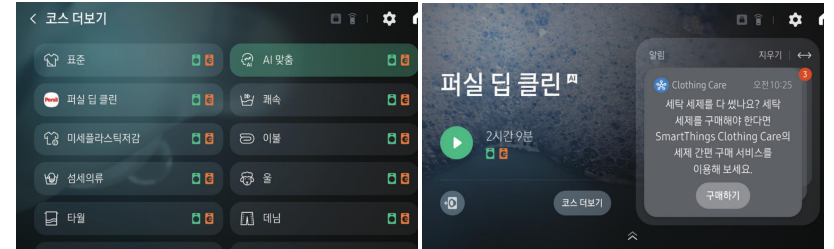
SAMSUNG

퍼실 딥 클린 코스

이종 업계 협력을 통해 개발한 강력한 세제 전용 코스

CHECK POINT

- ✓ 세제를 마디 물에 녹여 섬세하고 풍부한 세탁을 제공하는 에코 버블
- ✓ 표준코스 대비 적은 양의 세제 사용, 동일 성능 제공으로 세제 사용량 절감
- ✓ 최대 약 6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우수한 찬물 세탁 성능 확보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기술과 퍼실 딥 클린의 만남

삼성전자의 한켠이 공동 개발한 퍼실 딥 클린 코스는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에코 버블 기술을 한켠의 대표 액체세제인 퍼실 딥 클린 세제에 최적화해 세제 사용량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코스이다. 에코 버블 기술은 세제를 마디 물에 녹여 섬세하고 풍부한 거품을 만든 뒤 옷감 사이사이에 빠르게 침투시켜 오염을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하고, 옷감 특성에 따라 거품의 양을 조절한다.

퍼실 딥 클린 코스 사용 시 표준코스 대비 적은 양의 퍼실 딥 클린 세제로도 동일한 세탁 성능을 낼 수 있어 연간 약 600ml의 세제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약 두 달간 더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세제 절감: 월 16.6회(한국 에너지등급 산출 기준의 월평균 세탁기 사용횟수) x 3ml 절감 기준, 연간 약 600ml 세제 절감 가능).

세탁물의 오염도를 학습해 세제 투입량을 조절하는 'AI 세제 자동투입'

또한 찬물로 세탁해도 40°C로 설정한 표준코스과 동일한 세탁 효과를 낼 수 있어 사용 에너지를 약 60% 절약할 수 있다. 퍼실 딥 클린 코스는 비스포크 AI 콤보에 탑재됐으며, 7형 대화면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에너지 절감: WD25DB8998BZ 모델 KSC IEC 60456 시험포 3kg 기준 급수 온도(20±2°C), KATR(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증 받은 자사 시험 결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한편,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물의 무게는 물론 최근 세탁했던 세탁물의 오염도까지 학습해 세제 투입량을 조절해주는 'AI 세제 자동투입' 기능도 적용됐다. 세제를 채워두면 일반세제 기준 최대 33회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일반세제 합 선택 세제함 비농축 액체 세제 완충하고, 7kg 부하, 표준세탁 코스, 세제 투입량 보통/농축도 일반 설정 기준, 자사 실험 치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모델에 한해 적용).

CEO INTERVIEW

한 중 회 삼성전자(주) DX부문장(부회장)



인공지능(AI)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가전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가 2024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I 기능을 발 빠르게 가전제품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12개 제품 모두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가전과 스크린을 융합한 '스크린 에브리웨어(Screens Everywhere)'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로 모든 가전을 하나로 연결해 AI가 에너지 사용량까지 똑똑하게 절감해주고,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진정한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세를 기반으로 한 혁신 기능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환경을 바꾸는 기업이 되겠습니다.